

###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등 26개 지방공기업

# 2017년까지 부채 8조4000억 줄인다

#### 행자부, 부채비율 평균 111%로 이행 실적 경영 평가 반영·공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26곳이 2017년까지 부채 총 8조 4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지방공기업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평균 111%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으로 행정자치부의 특별관리 대상인 지방공기업이다.

도시개발공사가 15곳, 도시철도공사와

기타공사가 각각 5곳과 6곳이다. 2013년 행자부는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평균 120%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에는 지방공기업 유형별 목표에 맞춰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유형별 부채비율 인하 목표는 도시개발공사가 230%, 도시철도공사와 기타공사가 각각 100%, 200%다. 이들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이 실현되면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비율은 148%(작년말)에서 111%로 낮아진다. 부채총액은 49조 9000억원에서 41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398곳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은 3188억원 줄고, 부채비율은 3.1%

포인트 낮아졌다. 그 결과 부채총액은 73조6000억원, 부채비율은 71%로 낮춰졌다.

도시개발공사중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부채비율 316%), 도시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91%)가 빚부담이 가장 크다. 기타공사는 용인도시공사가 최고 부채비율(334%)을 기록했다.

부채 감축에 적극적인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도 허리를 더욱 졸라매기로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 부채 6580억원(부채비율 220%)에서 2014년 기준 부채는 6186억원으로 394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부채 비율로 19%로 200% 아래로 내려갔다. 전남개발공사도 같은 기간 부채

6846억원(136%)에서 6259억원(126%)으로 587억원이 줄었다.

행자부는 부채감축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 발행 승인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채감축 진행 상황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반기마다 공개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부채감축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구조개혁 등 지방공기업 혁신과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구민 다양한 의견 경청·반영

#### ‘제1기 의정모니터’ 모집

####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의정 심재섭)는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1기 의정모니터’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의정모니터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12일간 27명을 모집하고, 공모일 기준 19세 이상의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의정모니터는 위촉일부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북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 건의 ▲의정방정 및 의정활동 홍보 ▲기타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정모니터에 지원하고자 하는 구민은 광주시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gwangju.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되고 선정기준은 지역별·연령별 안배, 의정 또는 구정 참여 실적, 인터넷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선발한다.

심사결과는 9월 11일에 발표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북구의회(062)410-8512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윤지충 바오로 시복 1주년 축복식

염수정 추기경이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1주년 기념 바닷돌 축복식’을 주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도 지역개발공채 기금 소진 대규모 사업 추진 애로

#### 채무 6529억 중 4728억

#### 지역개발기금서 용자받아

전남도가 자동차 등록이나 계약 체결 때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의 최대치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면서 향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의 채무액은 모두 6529억원으로,

이 가운데 72.4%에 해당하는 4728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금리 3.0%에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용자받았다.

재해복구(810억원), 도로정비(1490억원) 등 불가피한 계속사업도 있었지만 청사신축(671억원), F1경주장(1357억원), 기업도시 출자(400억원) 등 전략적인 판단으로 쌓인 채무가 절반을 넘었다.

문제는 낮은 금리에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더이상 용자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남도만이 아니라 22개 전남지역 시·군의 용자누적 금액이

800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5년 뒤 매입자에게 일정한 금리를 붙여 상환해야 하는 지역개발공채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개발기금이 한계에 달하자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로부터 4%의 금리로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해 1801억원의 채무를 썼다가 지난 2013년 금리가 조금 낮은 농협으로부터 이율 3.77%(6개월 변동금리)에 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갈아탄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생활임금 시간당 7126원 제시할 듯

#### 최저임금보다 1000원 높아 도의회, 조례 제정 의견 수렴

전남도의회가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1000원 이상 높은 7126원을 생활임금 기준액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도와 산하기관은 내년부터 비정규직, 용역업체 직원 등 생활임금 대상자 360여명의 임금을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 강성취)는 경제복지포럼과 함께 24일 오후 ‘생활임금은 얼마가 적당할까?’라는 주제로 전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임금의 기준액과 관련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가 ‘전라남도 생활임금의 지급범위와 입법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 박사는 이날 “최저임금이 최저수

준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활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박사는 2014년도 기준 전남지역 생활임금의 기준액으로 시간당 7126원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1096원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와 산하기관이 이 기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할 경우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 경제복지포럼 대표 유승희 의원, 민주노총 전남본부 박중승 정책국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신연순 정책국장, 전남도 장영식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해 생활임금 도입 필요성과 금액, 적용대상 등에 대해서 토론회를 벌이게 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남도의회 강성취 위원장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지역경제 내수도 살고, 지역사회도 안정된다”며 “생활임금제가 전남도에서부터 시작해 시·군은 물론 전국 각지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양파·마늘·고추 ‘최저가격’ 이하 하락뎀 85% 지원

#### 함평군의회, 조례안 발의

함평군의회가 최근 만든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함평군은 양파, 마늘, 고추 가격이 일정기간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양파, 마늘은 6월, 고추는 8월에 10일 이상 통계청이 고시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산물안정기금 조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의 85%를 농산물기금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 농가는 함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1000㎡ 이상 1만㎡ 이내 경작해야 한다.

지원 대상 품목 중 1개 품목에 한해 연 1회 지급한다. 함평군은 현재 농산물안정기금 17억원원을 조성했고, 50억원 조성 이 목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재영 함평군의회 부의장은 23일 “군민들이 주로 재배하는 양파, 마늘, 고추 가격이 일정기간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면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며 “조례가 농가들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kwangju.co.kr

### 정의화 국회의장 전남대서 명예박사 학위 받는다

정의화(67) 국회의장이 전남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

전남대는 오는 26일 열리는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대는 영남 출신(경남 창원)의 정의화 의장이 평소 탁월한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통합의 정치 실현에 두드러진 족적을 남긴 공로를 인정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5선 국회의원인 정의화 의원은 정계입문 후 20여년 동안 동서회합과 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에 누구보다 열정을 바쳤으며, 특히 호남 지역발전에도 헌신해 명예 광주시민증과 명예 여주시민증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전남대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퀵 퍼스 용자관 컨벤션홀에서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1256명, 석사 428명, 박사 105명 등 모두 1789명에게 영예의 학위를 수여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140611-중-59153호

**삼성이 선택한 평택!!! 투자설명회**

평택! 지금이 투자적기입니다

**평택 전지역 집중분석**

(주)평택하성 부동산개발에서 발간하는 투자로 북한수익형 살전 부동산 투자법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강의내용**

- 고덕국제화 신도시
- 평택 개발
- 삼성전자 반도체단지
- 주한미군기지 이전
- KTX 수사~평택간 개통

**일정과 장소**

2015. 8. 25(화) 오후 2시~4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214호

예약문의 : ☎ 062)942-8858

**주최**

(주)평택하성 부동산개발인

찾아오시는 길

김대중 컨벤션센터

김영은 회장 (대표)

박현아 대표 (간부)

- 코이재지 재테크세미나스 강사
- (주)평택하성 부동산개발인 대표
- 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 CS(사회복지사)전문부 10년근무
- 전설자랑강령 외래교수
- 토지전문가